

## 생활한복 이미지를 활용한 캐주얼웨어 디자인 개발

박 영 선

명지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 A Study on the Casual Wear Design based on the Image of the Modernized Korean Costume

Young-Seon Park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 Design, Myoung-Ji University  
(2004. 5. 17 토)

#### ABSTRACT

Costume is a formative art expressed by active human unlike the field of other living formativeness, and an expression of social actions based on a style of culture in a period. Therefore, costume has a deep connection with a mode of living and is recognized as a 'culture for living', and is more characteristic culture than all metaphysical cultures including architecture, craft, painting, and sculpture. Therefore, it expresses wearer's status or social standing, and furthermore, ideas and values of the times with aesthetic features in their form, color, materials, and pattern, so it is expressed as a mirror reflecting the phases of the times as.

Korean costume had been dressed until th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without a great change and started to be simplified in a simple style on the grounds of inconvenience in behaviors with the opening of an interchange of Western culture in the civilized period. And, this movement had been continued and Korean costume had been applied as an everyday dress under the name of 'Reformed Korean Costume'. Since the middle phase of 1980s, it aroused many people's interests with the introduction of designs focused on activity and convenience.

In 1990's, many people had taken a growing interest in Korean costume with development of various designs keeping pace with the internationalization period and Korean Costume had been revitalized under the name of 'The Modernized Korean Costume'. And, since the 21st century, the advanced communication and full-scaled import of Western fashion have made the introduction of many fashion information in the world into Korea, affected greatly the fashion market, led consumers' sensitivity on a trend to be increased. Therefore, a design accepting a trend 'The Modernized Korean Costume' with fashions has risen.

Second, this study is an attempt to suggest a revitalization method of domestic casual Korean costume brands by developing and suggesting competitive and highly value-added products with connection of practicality, variety, and highly sensitive fashion styles.

For theoretical study,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s, academic journals, professional monthly magazines, and newspapers were examined. And, a process of change and features of the Korean fashion since the civilization period, and concept, features and images of casual Korean costume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analyzing image, features, and consumers' preference of the modernized Korean costume, a design development plan was established and 10 suits of costume were designed and made.

Key words: The modernized Korean costume(생활한복), casual(캐주얼)

## I. 서론

복식은 인간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부터 기후, 풍토, 경제, 정치체제, 민족성, 생활양식 등의 배경에 따라 발생하고 발전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 한복의 형태나 구조 등에 대하여도 자연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 시대의 대중화가 가능한 디자인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는 한복에 있어서도 전통미의 계승과 생활화라는 명제가 단순히 복고적인 전통의 고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형태로 발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복의 생활화'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생활한복이 일상복으로 정착하기보다는 일부 전통에 관심이 많거나 개성이 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

한복의 생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방안으로 김진아(1994)의 연구 결과에서 한복은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를 전체응답자가 53.7%가 '활동에 불편하다'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갖추어 입기 번거롭다(15.3%)', '어색하고 쑥스럽다(10.3%)', '미흔이므로(4.7%)' 순이었다.<sup>1)</sup>

이선영(1989)의 연구결과에서는 20대가 한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색하고 쑥스럽다', '우리옷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볼 것 같아서', '미흔이기 때문에', '불편해서'의 순으로 나타나있고 30대는 주로 불편함을 이유로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sup>2)</sup>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한복은 민족문화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한복 디자인을 할 것이다.<sup>3)</sup> 그러므로 다양성과 대중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역점을 두어 디자인 개발하고자 한다.

최은영(1999)은 브랜드의 생활한복이 용도나 체형, 연령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자기 적합성의 결여를 말하였다. 또

한, 상품디자인에 대한 불만족으로 상표가 달라도 작품은 비슷하여 개성을 살릴 수 없으며, 색채비가 결여되어 '색상이 그렇고 그렇다', '직물의 질감이 좋지 않다'라고 하였다. 이는 생활한복을 사겠다고 하던 주부들이 막상 제품을 선택하려고 할 때, 형태면에서는 국적이 없어 보이고, 소재의 질이 좋지 못하며, 색채배합이 세련되지 못하고, 성의없는 바느질솜씨 때문에 구입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뒷받침 해주었다.<sup>4)</sup>

또한 1998년 생활한복 124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객으로부터는 불만 사항이 '디자인이 단순하고 규격화 되어있다', '색상이 다양하지 않다' 등의 비율이 높았다.<sup>5)</sup> 이것은 고객들은 생활한복의 획일화된 디자인에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생활한복업체의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비의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하겠다. 또한 생활한복 착용 활성화를 위한 우선과제로는 '생활한복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의 개선', '한복착용의 기회를 늘리는 범국민 운동 전개', '세련되고 다양한 디자인 및 소재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한복의 일상복화는 현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나 의미를 찾는데서 시작되어야 하고, 또 대중화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현대 생활한복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지캐주얼', '감성캐주얼' 등 '캐주얼'이란 키워드가 확대되고 있는 패션문화에 편승하여 생활한복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실용성, 다양성을 갖춘 캐주얼 웨어를 디자인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한복의 개념과 이미지를 국내외 학술 전문지, 전문월간지를 통하여 살펴본다.

둘째, 생활한복의 디자인, 시대별 특징을 분석한다.

셋째, 상품개발을 위한 소비자 인지도를 설문조사한다.

넷째, 상위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상품기획 제작 한다.

## II. 생활한복의 이미지와 특징

### 1. 생활한복의 개념

한복은 조선시대까지 큰 변화 없이 입혀지다가 개화기에 서양문화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활동상의 불편함을 이유로 간편한 형태로 간소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개량한복'이라는 이름으로 일상복으로 입혀지다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활성화되고 편리성에 중점을 둔 디자인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0년대에 와서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디자인이 개발되자 우리 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한복'이라는 이름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sup>6)</sup>

생활한복이라는 어휘는 비교적 최근(1980년대)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변형된 한복은 이미 개화기부터 개량한복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고, 이외에도 겨레옷, 우리옷, 변형한복, 현대 한복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한복에 대해 서양의복이 도입되는 개화기 이후를 시점으로 정하여 전통복에서 유발되는 착용 및 생활에 불편함을 개선하여 현대생활과 현대인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디자인을 개발한 의복으로 정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생활한복의 특징을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상복으로 입혀왔던 한복에서 양장으로 전환하는 개화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성 잡지 「여원」과 월간 「멋」, 「엘르」, 「패션 투데이」 등의 사진과 문헌자료를 토대로 생활한복의 이미지와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 2. 생활한복의 이미지

#### 1) 선

한국복식의 미는 직선과 곡선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직선은 어깨, 진동, 뒷중심선 등에서 수평, 수직을 생각할 수 있고 깃에서 사선을 생각할 수 있다. 곡선은 배래선, 도련선 그리고 옷 고름의 흐르는 미, 치마자락의 동적미 등을 직선의 형상이 곡선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복식에서 곡선이 미적특정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용된 선이 직선이든 곡선이든 대부분 곡선의 분위기로 나타나고 음미되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생활한복에 나타난 선은 한복의 저고리 깃, 옷고

름, 배래선을 활용한 디자인이 많으며, 직선의 저고리 깃과 옷고름 길이의 차이, 소매의 배래선, 저고리 도련선 등 직선과 곡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곡선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곡선이 모이는 각진 곳은 거의 90°의 둔각을 이루며 느긋하고 여유있는 것이 특징이다.<sup>8)</sup>

이러한 곡선은 설윤형, 이영희 등의 디자인에 많이 나타났다(그림 1, 2).

#### 2) 색채

전통복식은 음양오행적 우주관을 바탕을 둔 오방색의 정색(正色: 靑, 赤, 黃, 白, 黑)과 간색(間色: 紅, 綠, 碧, 紫, 驥)을 기본으로 했다. 이중에 백색(素色)과 푸른색(青色, 綠色)은 의복색으로 한국인의 뿌리깊은 인격지향의 인격미를 상징하여 애용되었다.<sup>9)</sup>

특히 백색은 우리민족의 결백, 무욕을 상징하고 소색(素色)에서 느끼는 자연미와 상복(喪服)으로서 내세를 기원하는 한(恨)의 예술적인 승화를 표출하였다.<sup>9)</sup>

생활한복에서 앙드래김의 무대의상이나 설윤형, 트로아조의 디자인에 자주, 연두, 파랑, 노란색이 애용되었다.

또한 빨강, 노랑, 녹색, 남색의 색동으로 악센트를 주기도 하였으며(그림 3) 천연염료를 사용하여 자연색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화학염료에서 도출할 수 없는 은은하고 우아한 색을 나타내어 전통미를 형상화하였다. 흑과 백은 프랑스의 쉬크(chic)와 세련됨의 상징으로 현대 생활한복에 활용되었다.

#### 3) 소재의 표현효과

##### (1) 누빔

누빔이란 퀼팅(quilting)이라고도 하며 마고자, 배자, 저고리, 두루마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퀼팅 기법을 사용하여 실용성, 불륨감,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평면적이고 얇은 면직을 실크, 폴리에스텔, 공단과 같은 직물에 가는 선으로 촘촘히 누비거나 전통적인 기하학적 무늬, 당초문, 연화문 등으로 누빔으로써 표면효과를 살리고 입체감을 주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촘촘하게 누빈 베스트, 풍성한 재킷에서 볼 수 있으며 손수가 아닌 미싱자수에 의한 기법과 크고 투박한 표면효과로 정숙미나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보다는 실용적인 캐주얼한 활력있는 멋으로 변했음을 느끼게 한다(그림 4).<sup>9)</sup>

### (2) 깨끼 바느질

깨끼 바느질은 애이 은은하게 비치는 아사 깨끼 저고리는 우아하고 은근한 관능미를 표현한다. 깨끼에 의한 솔기처리는 평면적인 단조로움 변화를 주었다. 또한 세번 말아 밖는 깨끼 바느질땀 하나하나에 정성어린 마음가짐과 인내력, 여성의 정숙미와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88 서울올림픽을 전후 깨끼바느질기법은 여름에 유행한 모시상의나 원피스 등에서 많이 애용되었다.

### (3) 조각천(Patch Work)

패치워크는 여러가지 조각천, 조각을 모아서 퀘매어 배색이나 모티브를 다르게 표현하는 수법이다. 조각보의 이미지의 원색이나 유사색의 아름다운 색상으로 배합된 조각천을 이어서 만든 패치워크 수법이 여러가지 의복의 전체나 조끼, 스커트 등의 부분에 장식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1990년대 그런지룩(grunge look)의 유행과 함께 서로 다른 소재의 패치워크가 결합된 디자인도 있었다.

이러한 패치워크 기법은 단순한 실루엣에 생기를 넣어주며 악센트 효과를 주었다<그림 5>。

### 4) 문양

전통문양중 연화문, 목단문, 창살문, 회문 등을 이용하였으며, 문양은 화려한 자수나, 금박기법을 이용하여 단순한 실루엣에 입체적인 효과를 주거나 리듬감을 주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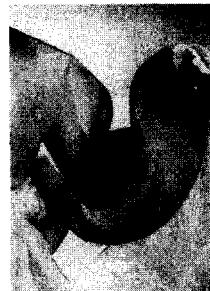
꽃과 나무를 모티브로 한 자수기법은 80년대 생활한복에 많이 애용되었다. 특히 앙드레 김은 공단, 비로도, 우단 같은 광택지에 자수를 놓아 화려한 의상이나 무대의상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으며<그림 6>, 베, 모시, 면, 모직물에도 화려한 색으로 표현되었다.

금박문양은 전통복식에도 사용된 식물문양, 길상어구, 창살문양, 떡살문양 등의 기하학적 문양이 애용되었으며 금사를 넣어 전통문양을 직조하여 세련되고 고급스런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밖에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해신, 달신을 프린트하거나 민화를 복식에 그려넣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생활한복의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생활한복의 디자인 특징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도록 하겠다.



<그림 1> 당의의 곡선, 설윤형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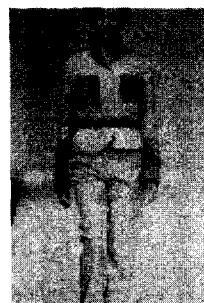
<그림 2> 이영희 (1994)



<그림 3> 색동 이미지의 코트, 설윤형 (1996)



<그림 4> 월팅 재킷, 루비나 코트, 설윤형 (1995)



<그림 5> 조각보 이미지의 팬츠 슈트, 설윤형 (1995)



<그림 6> 자수와 패치워크 드레스, 앙드레김

### 3. 생활한복의 디자인 특징

생활한복의 브랜드 개발을 위한 한복의 디자인별 특징분석은 문현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956년부터 98년까지 약 40년 동안의 자료들이 고찰되었다. 수집된 디자인은 300여 사례였으며 실제 분석에 활용된 디자인은 260개였다.

### 1) 아이템을 모티브로 한 생활한복디자인

생활한복디자인에 활용된 전통복식아이템은 남성복보다는 여성복이 많이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 당의, 철릭, 활옷, 배자, 조끼, 막고자, 냉기, 주머니, 아얌, 벼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활용되어 온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의복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복식요소를 여러 디자이너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한다하더라도 각 디자이너의 패션감각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950년대에는 전통복식의 원형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가 많았다. 이때의 복식은 한복의 구성이나 기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착용자의 활동성을 고려한 디자인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60년대 중반, 양장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서구패션에 영향을 받은 생활한복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한복을 개량해서 만든 하이웨이스트 원피스에 보례로식의 저고리를 디자인하였으며〈그림 7〉, 것의 형태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A라인의 편안한 실루엣을 이루었으며 긴 장갑과 챙이 넓은 모자를 코디네이션하여 서구패션의 우아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그림 8〉.

86년 지춘희는 철릭과 액주름포를 이용하여 여성의 원피스를 디자인하였다. 철릭과 액주름포의 섬세한 주름은 여성의 인체와 함께 더욱 우아하게 표현되었으며 남성복을 모티브로한 디자인으로 독특한 복식미를 창출하였다〈그림 9〉. 또한 이광희는 당의를 자켓 디자인에 활용하였는데 두 겹의 넓은 스커트와 함께 당의의 아름다운 선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였다〈그림 10〉.

87년 이신우는 두루마기를 코트 디자인에 접목하였는데 모노톤을 이용하여 모던한 랜디룩을 표현하였다〈그림 11〉.

이상 생활한복에 활용한 전통복식의 아이템은 모두 조선시대 의복의 양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저고리는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옷으로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하여 가장 많이 활용된 모티브 중의 하나이다. 저고리의 구조적인 특징은 현대 패션에서 선이나 디테일의 활용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양식을 출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저고리의 옷고름의 여밈에 의한 비대칭성은 한국적인 디자인의 양상을 결정짓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치마는 그 자체만을 모티브로 하여 재현된 경우가 많아 주목된다. 구성은 매우 간단하지만 착용자가 어떻게

착용하는가에 따라 여러 모양을 보여주는 조형적인 장점 때문이다.

### 2) 조형요소를 모티브로 한 생활한복디자인

전통복식의 조형 요소에는 선을 포함한 형태 외에도 색채, 소재, 문양, 장신구 및 디테일 등 세부사항 특성들이 미적요소로 작용하고 있다.<sup>10)</sup>

#### (1) 선을 모티브로 한 생활한복디자인

한국 전통복식의 중요한 미적특징 중 하나로 곡선의 미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한복디자인에서는 곡선보다 직선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이 더 많았다〈표 1〉. 단순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교가 없는 직선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며 또한 입체구성을 한 의상에도 한복구성의 특징인 평면구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직선적인 디자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결국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직접적으로 복식의 원형을 모방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그 대신 미적 정서를 표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출현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1〉 생활한복에 나타난 전통적인 선의 종류

종 류	직 선	곡 선	기 타	합 계
사례수	175	55	30	260
백분율	67	21	12	100

86년 설윤형은 한복의 도련, 배래 등의 곡선의 미를 표현한 블리우스를 디자인하였다.〈그림 12〉 또한 91년 이신우는 직선을 사용하여 전통미를 표현하고자하였다〈그림 13〉.

#### (2) 색채를 모티브로 한 생활한복디자인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색채는 의상의 조형미를 표현하는 중요한 조형요소이다. 사용된 색채는 원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은 백색, 흑색, 중간색, 기타의 순이다〈표 2〉. 전통복식에서는 백색이 선호했던 색채로 여겨져 왔으나, 실제로 문헌 조사 한 결과 색채를 모티브로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생활한복디자인에서 원색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여기에서 원색들은 브라이트 톤(bright tone)보다는 비비드 톤(vivid tone)이 사용되고 있어서 한국의 전통적인 이미지인 단아함이나 담백한 이미지보다는 모던하며 경쾌한 이미지로 바꾸고 있다〈그림 14〉.

이외에도 중간색이나 패스텔 색, 자연색, 색동, 기타 등의 색채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 자연색은 자연을 모방한 색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색채군은 면, 마, 견 등의 섬유에 천연염료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색으로 한국적인 디자인에 많이 사용되었다.

〈표 2〉 생활한복에 나타난 전통적인 색채

색 명	원색	백색	검정 색	중간 색	자연 색	색동	기타	합계
사례수	81	61	56	23	21	6	12	260
백분율	31	23	22	9	8	2	5	100

### (3) 소재를 모티브로 한 생활한복디자인

한국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디자인에 사용된 소재로 자연소재가 애용되었다(표 3). 1950-70년대까지는 양단, 노방, 생명주, 모시 등 한복 소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80년대에 들어서 면, 모, 견, 마 등을 주로 이용하여 한국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봄, 여름에는 노방이, 가을, 겨울에는 양단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표 4).

### (4) 표현기법을 모티브로 한 생활한복디자인

소재는 그 표현기법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낸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소재를 원래 상태대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재와 대비시키는 경우, 누비나 자수 등 바느질 기법을 이용하는 경우, 주름, 엮기 등 소재의 입체적 표현 기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비교적 단순한 소재 표현으로, 독특한 표면효과를 갖는 소재 개발이 시급하다(표 5).

〈표 3〉 생활한복에 나타난 소재

종 류	견	모	면	마	T C	기타	합 계
사례수	118	43	41	33	13	12	260
백분율	45	17	16	13	5	5	100

〈표 4〉 생활한복에 나타난 견직물

종 류	노방	양단	사	뒤풀	기타	합 계
사례수	50	51	6	3	8	118
백분율	42	43	5	3	3	100

〈표 5〉 생활한복에 나타난 표현기법

표 현 기 법	조 각 보	깨 깨	누비	자 수	주 름	엮 기	나 땀 및 기 타	합 계
사례수	33	22	21	12	10	8	9	115
백분율	29	19	18	10	9	7	8	100

### (5) 문양을 모티브로 한 생활한복디자인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 생활한복디자인은 복식 조형요소 중 하나인 문양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작적으로 두드러지는 문양은 거의 없고 잔잔한 문양이나 소재의 지문으로 표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적인 전통문양이 많이 사용된 시기는 1990년대로, 이 시기에는 오리엔탈리즘이 패션경향의 하나로 널리 확산되어 있던 시기였다.

생활한복에 활용한 문양의 종류를 살펴보면 기하학적 문양, 화문동물문 등의 사용이 많았으며, 그 밖에 색동문, 일월문, 도깨비문, 인물문, 운문 등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특히 기하학적 문양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전통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현대 생활한복디자인에 적합하기 때문에 추정된다. 꽃문양은 목단문(牡丹紋), 연화문(蓮花紋), 매화문(梅花紋) 등이 사용되었다(그림 15).

### (6) 장신구를 모티브로 한 생활한복디자인

장신구는 의복에 섬세함과 정교함을 더해주며 미흡한 부분을 보강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또한 악센트, 조화, 강조 등의 미적 특징을 갖고 있어,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패션디자인에서 전통적인 장신구를 모티브로 활용하기도 한다.

생활한복디자인에 등장했던 장신구를 살펴보면 족두리, 아얌, 조바위, 너울, 맹기, 노리개 등이 있다.

93년 흥미화는 파리컬렉션에서 삼베로 너울을 디자인하여 현대 복식에 전통미를 부각시켰다(그림 16).

## 4. 생활한복의 시대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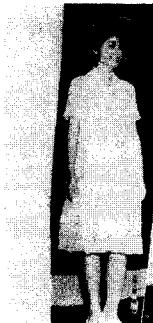
### 1) 1950년대 생활한복의 특징

1950년대는 한복과 양장의 공존시대로 거리에는 한복과 양복을 입은 사람, 한복에 양장코트를 걸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렸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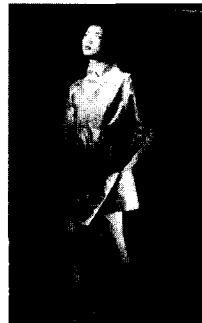
이 때에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서구복식 문화를 수용하는 시기로서 1954년경부터 차츰 신문의 문화면에 여성에 관한 기사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1955년에 창간된 「여원」에는 세계패션경향과 국내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생활한복의 형태는 거의 없었으며 한복위에 걸칠 수 있도록 풍성하게 A라인으로 내려오고, 돌만소매(Dolman Sleeve)에 널찍한 카후스(Cuffs)를 단 코트는 전통적인 요소를 반영했다기보다 한복위에 입



〈그림 7〉 개량한복  
(1963. 8. 여원)



〈그림 8〉 저고리를 응용한  
생활한복  
(1963. 5. 여원)



〈그림 13〉 직선을 이용한  
디자인.  
이신우 (1991. 1. 멋)



〈그림 14〉 색채를 응용한  
디자인. 설윤형  
(97. S/S S.F.A.A.)



〈그림 9〉 철학을 응용한  
디자인.  
지춘희 (1986. 10. 멋)



〈그림 10〉 당의를 응용한  
디자인.  
이광희 (1986. 12. 멋)



〈그림 15〉 꽃무늬 코트  
(1988. 멋)



〈그림 16〉 너울을 응용한  
디자인. 흥미화  
(1983. 9. Elle Korea)



〈그림 11〉 두루마기를  
응용한 디자인.  
이신우 (1998. 1. 멋)



〈그림 12〉 저고리선을  
응용한 디자인.  
설윤형 (1990. 5. 멋)

을 수 있도록 고려한 디자인이라 하겠다.

또한 1959년 전통적인 요소와 서구패션을 융화, 수용하려는 노력은 수도여자대학교 졸업작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셔츠에 몸빼바지를 입고 그 위에 테일러드 코트를 착용한 것으로 전통성과 실용성

을 목적으로 디자인 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18). 이와 같이 1950년대는 서양복식의 첫 수용단계로서 양장을 받아들였던 시기이며 일상복으로써 전통적 요소를 고려한 현대 생활한복의 형태는 아직 찾을 수가 없었고 다만 한복의 형태를 변형한 시도가 있었다.

## 2) 1960년대 생활한복의 특징

이 시기에 나타난 전통적 요소는 1961년에 발표된 이브닝 코트로 종래 한복 위에 입을 수 있는 코트형태에서 양장에 어울리도록 한복 두루마기의 특징을 살린 것이다.

두루마기의 후레아(Flare)와 단추를 옷고름의 위치에 달게 하여 한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깃과 기장은 양장에 조화시킨 한복·양복의 절충식이다(그림 19). 둑근 무늬가 있는 양단 투피스도 당시 유행하던 H라인에 전통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디자인하였으며(그림 20) 63년 원피스에 볼레로 스타일

에 전통적인 문양을 표현하였다(그림 21). 또한 하이웨이스트라인 드레스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결혼의상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또한 1967년 색동을 응용해 발표된 노라노의 작품은 단순한 디자인에 스트라이프 무늬를 우리나라 고유의 색동으로 대체하여 공단과 색동의 조화를 이룬 디자인이다(그림 22).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김복환, 김정애, 박문자, 조세핀 조, 트로아 조가 있으며 이 중 김복환의 작품은 수직실크 꽃자주 바탕에 초록과 노랑과 검은 색의 배색으로 전형적인 한국 색을 사용하였으며 넓은 소매와 스커트, 소매와 하이 웨스트 (High Waist), 목에 배색한 전통무늬는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었으며 실루엣은 당시 유행한 A라인으로 디올의 색드레스를 표현한 것이었다(그림 23). 또한 트로아 조는 그 당시 유행하던 미니형태에 한복에 사용했던 노리개를 이용하여 악센트를 주었고 비취 빛 실크 소재에 목선과 소매 끝에 전통문양을 넣음으로서 세계유행을 반영한 생활한복을 시도하였다(그림 24).

이신우는 양단을 소재로 팬타롱을 발표하였고 박정일은 당시에 유행하던 팬타롱에 데기를 벨트로 하였으며 머리에 비녀를 꽂아 전통과 현대미를 모던하게 표현하였다(그림 25).

1960년대에는 양장이 일상복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장의 보급도 활발해졌고 차츰 의도적으로 양장에 전통적인 선, 색채, 소재, 문양과 장식 등을 응용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유행하던 서구패션의 생활한복에 자연스럽게 수용되었다.

### 3) 1970년대 생활한복의 특징

1970년대는 계속적인 경제성장으로 패션의 대중화, 즉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자들의 의식변화 및 소비성향의 보급화로 기성복 착용률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

70년대에도 유행을 반영한 생활한복이 꾸준히 보이는데 주로 일상복 보다는 파티용 드레스 등으로 많이 시도되었다.

색동을 이용한 디자인은 50년대부터 꾸준히 보이는 것으로서 김명지의 디자인은 깃, 소매끝, 벨트, 치마단에 색동을 배색함으로써 악센트를 주었다(그림 26). 또한 V자로 깊이 파이고 옷고름과 흡사한 끈 장식의 블라우스는 한복의 저고리 형태를 느끼게 하며(그림 27) 주름의 선과 폭넓은 퍼프 소매, 벨 소매는 60년대 말 영패션의 반동으로 생긴 서구

의 여성스럽고 우아한 클래식룩을 반영한 것이었다.

### 4) 1980년대 생활한복의 특징

1980년대에는 아시안 게임, 올림픽 등의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개방화, 국제화가 요구되어지고 더불어 패션도 국제적인 흐름을 같이하면서 그 속에서 현대한국복식의 고유성을 찾아야 했다. 그러므로 1980년대 들어오면서 당시의 유행 경향을 수용하면서 한국적인 이미지를 찾고자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설윤형, 이신우, 진태옥, 박혜숙, 양드레 김 등이 있으며 이들은 현대복식에 전통복식의 조형미를 수용하거나 전통 한복에 서양복식의 형식미를 나타내었다.

10여년간 한국적 이미지를 꾸준히 모색했던 이신우는 10여년간 모시와 삼베를 소재로 이용하고 한복의 동정, 배래선 등을 현대 패션에 도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그림 28, 29).<sup>11)</sup> 또한 87년 진태옥은 이제 세계화와 우리나라 패션경향이 거의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럴수록 개성 있는 디자인의 독창성이 요구된다고 역설하였다.<sup>12)</sup> 그의 디자인은 한국적 이미지를 현대한국복식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으며 88 올림픽을 기념하는 패션쇼에서 조각보를 형상화 투피스를 발표하였다. 실루엣은 서구패션을, 표현기법은 누빔과 조각보 등 전통적인 기법을 수용하면서 생활 한복의 국제화를 시도하였다(그림 30).

그리고 전통미를 나타낸 웨딩드레스가 발표되기도 하였는데 공단과 쉬폰, 레이스를 소재로 원삼의 이미지를 나타내었으며 머리에는 면사포를 썼다. 이것은 서구패션과 전통복식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지금까지 약혼복에 많이 착용되고 있다.

설윤형 역시 한국전통 문양과 색채로써 현대한국복식에 전통적 요소를 강조해온 디자이너이다. 80년대 일본 패션의 영향으로 어깨를 강조하는 라글란 소매나 패딩이 유행하였는데, 모시와 노방을 이용하여 한국적인 선과 당시 유행한 패션을 표현하는 복식을 발표하였다(그림 31).

또한 내셔널 브랜드로써, 20대가 타겟이며 심플하고 폐미난한 패션으로 각광을 받던 '마인'도 자수장식과 한복의 속고름을 형상화 한 디자인을 선보였다(그림 32).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80년대 생활한복의 특징은 정통성을 강조한 디자인 개발이다. 국제적인 행사참여와 유치로 국가의 정통성 확립에 중점을 두었

다. 그러나 소비자의 욕구 충족보다는 전통적이미지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 5) 90년대 생활한복의 특징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외시장 개방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많은 외국 브랜드들이 국내 패션시장에 유입되었다. 그러므로 국내 패션의 흐름은 서구의 트렌드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경쟁력 있고 독창적인 생활한복 디자인 연구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속에서 몇몇의 디자이너들이 해외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설윤형, 이신우, 이용열, 오은환, 박혜숙, 이영희, 박재원, 홍미화, 앙드레 김이 있다.

80년대부터 꾸준히 전통 문양과 색상, 소재를 개발, 현대화 작업에 몰두해온 설윤형은 자신만의 독특한 라인을 구축하였다(그림 33).

서정기는 실크 블라우스와 스커트위에 조각보를 모티브로 조끼를 디자인하였으며 노리개로 악센트를 주었다(그림 34).

박재원은 저고리를 응용한 짧은 누빔 자켓과 단청무늬의 랩 스커트를 발표하였는데 고전미와 현대미가 함께 어우러진 에스닉 모드이었다(그림 35).

95년 진태옥은 S/S, S. F. A 컬렉션에서 목단문양, 섭장생문양, 니트, 진, 레이온 등을 이용하여 미니 스커트, 탑, 드레스, 테일러드 수트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또한 이신우는 95 S/S, 프레타 포르테 파리 컬렉션에서 메탈, 펄, 비닐, 프라스틱을 이용하여 패션 소재의 한계성을 과감히 탈피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였다. 자연과 동양의 멋을 강조한 이 컬렉션은 메탈소재에 고구려 고분벽화의 해의 신, 달의 신을 형상화하기도 하였다(그림 36).

'96 S/S, S. F. A 컬렉션에서 '댕기'를 테마로 과거와 현재와의 만남, 새것과 옛것의 만남을 표현하였는데, 산통 실크, 노방, 저어지, 비닐코팅, 광택소재 등을 이용하여 나이와 신분, 계층의 구분이 없이 여자의 머리를 장식했던 댕기를 60년대 의상에 리믹싱(Remixing)하였다(그림 37). 컬렉션에서도 조각보와 창살무늬, 벳살무늬 등을 이용하여 심플하고 모던하며 기하학적인 패션을 발표하였다(그림 38).

이와 같이 90년대 생활한복은 디자이너의 일본, 파리진출과 수입브랜드들의 국내유입에 따른 '패션의 세계화'에 편승하여 독특한 한국의 전통미를 찾고자하는 분위기 속에서 발전해왔다.

그리고 에스닉과 사이버 평크의 세계적인 트렌드의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소재와 표현기법을 시도

하였으며 그 결과 세계 패션시장에서 국내 생활한복은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림 17〉 1956년 거리풍경  
(1956. 여원)



〈그림 18〉 수도여자  
사범대학 졸업작품  
(1959. 2)



〈그림 19〉 한복, 양복  
절충식 이브닝 코트  
(1961. 2. 여원)



〈그림 20〉 양단투피스  
(1961. 4. 여원)



〈그림 21〉 전통문양으로  
장식한 블레로 스타일  
(1963. 1. 여원)



〈그림 22〉 공단과 색동의  
색조화를 이룬 드레스  
(1967. 3. 여원)



〈그림 23〉 한국미를  
표현한 롱 드레스  
(1969. 3. 여원)



〈그림 24〉 미니 스타일과  
전통적 문양을 특징으로 한  
원피스 (1969. 3. 여원)



〈그림 29〉 이신우 작품  
(1989. 2. 멋)



〈그림 30〉 진태옥 작품  
(1988. 10. 멋)



〈그림 25〉 댕기로 장식한  
판타통 스타일  
(1969. 7. 의상)



〈그림 26〉 색동으로  
악센트를 준 통드레스  
(1978. 10. 여원)



〈그림 31〉 설윤형 작품  
(1986. 7. 멋)



〈그림 32〉 '마인' 1989 F/W  
(1989. 9. 멋)



〈그림 27〉 한복 저고리의  
이미지를 살린 투피스  
(1975. 6. 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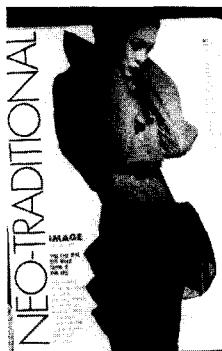
〈그림 28〉 이신우 작품  
(1984. 6. 멋)



〈그림 33〉 설윤형 작품  
(1990. 5. 멋)



〈그림 34〉 서정기 작품  
(1993. 3. Elle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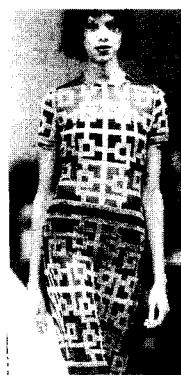
<그림 35> 박재원 작품  
(1994. 1. Elle Korea)



<그림 36> 이신우 작품  
(94. 12. 패션투데이)



<그림 37> 설윤형 작품  
(95. F/W S.F.A.A.)



<그림 38> 설윤형 작품  
(97. S/S S.F.A.A.)

지금까지 생활한복의 특징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복이 개량되고 활동성과 편리성에 역점을 둔 50~70년대에도 유행을 반영한 생활한복은 존재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80~90년대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 사이클은 생활한복에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패션의 흐름 속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생활한복 디자인은 부족하여 많은 상품들이 판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였다.

### III. 상품개발을 위한 소비자 인지도조사

#### 1. 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 대상

2003년 7월 16일~2003년 7월 23일까지 우리나라

전국 16개광역시도(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제주)에 거주하는 여성 만 18세~만 39세를 대상으로 조사 하였으며 총 336명이 참여하였다.

#### 2) 조사 방법

조사내용은 캐주얼 여성복 구매 형태 및 선호도, 생활한복 착용 경험, 생활한복 디자인 선호형태, 유행 및 가격에 대한 민감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이메일조사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설문문항은 캐주얼웨어 구매 형태 7문항, 캐주얼웨어 디자인 선호형태 11문항, 생활한복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대한 문항 8개로 모두 26개이다.

#### 3) 결과 분석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례수(명)	%
전체		336	100.0
연령별	만18세~19세	60	17.9
	만20~29세	234	69.6
	만30~39세	42	12.5
직업별	학생	149	44.3
	취업여성	122	36.3
	전업주부	37	11.0
	기타	28	8.4
거주 지역별	서울	96	28.6
	인천/경기	72	21.4
	부산	38	11.3
	기타	130	38.7
월평균 소득별	150만 미만	135	40.2
	150~300만 미만	132	39.3
	300만 이상	69	20.5
월평균 용돈별	15만 미만	97	28.9
	15~30만 미만	143	42.6
	30만 원이상	96	28.6
생활한복 구매 의사별	긍정	117	34.8
	중립	172	51.2
	부정	47	14.0

##### (2) 캐주얼 구매형태

만 16~39세의 여성은 '무난하고 편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경향은 생활한복 구매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응답자들일수록 높았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무난한 스타일 보다는 유행성을 가미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동안 구입한 경험이 있는 캐주얼 브랜드로는 '톱보이', '시스템', 'DKNY'의 순으로 나타났

다. '시스템'과 'DKNY'는 취업여성에게서, '톰보이'는 주부들에게서, '클라이드'는 학생집단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캐주얼 구입 빈도는 보통 1년에 2-4별 정도의 캐주얼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타지역보다 구입 빈도가 높았으며 특히 서울 강남이 강북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여성들이 캐주얼 구입 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디자인> 나와의 어울림> 가격> 브랜드 인지도 순이었다. 가격은 1순위에서는 크게 높지 않았으나 1+2순위에서는 디자인 다음으로 주요하게 나타나 가격요소를 전제로 하여 디자인과 어울림을 고려하여 캐주얼을 선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월평균 용돈이 많을수록 디자인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은 디자인, 강북은 나와의 어울리는 정도를 고려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서울 경기는 타 지역에 비해 가격에 민감한 편이었으며 캐주얼 여성 투피스를 기준으로 20만원 미만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0%가 넘었다.

세탁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하고 있으며 월평균 용돈이 많을수록, 서울 거주자일수록 드라이 크리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캐주얼웨어 디자인 선호도

디자인이 마음에 들 경우 정상구매 한다는 응답자는 46%로 정상구매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8%)에 비해 6배 높게 나타났으며, 이런 결과는 앞서 살펴본 캐주얼웨어 선택 시 중요 요소로 디자인 가장 높은 수준(42.6%)을 보인 것과 일관성 있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한복 구매의사가 높을수록 가격과 상관없이 디자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여성 캐주얼 자켓 디자인 선호형태

캐주얼웨어 자켓 디자인 중에서 여밈의 형태로 단추를 선호한다는 응답자기 63%로 지퍼(2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단추 선호자 중 어떤 형태의 단추 여밈을 선호하는지 알아 본 결과 단추가 겉으로 보이는 형태(55%)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 형태(45%)보다 약간 많았다.

또한 선호하는 네크라인은 스텐카라 > 라운드 > 후드 > 차이나 카라> 브이넥 순이었으며 스텐카라는

41%로 가장 선호하는 캐주얼 자켓의 네크라인 형태 였고 고소득층에서 차이나 카라에 대한 선호도가 타 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선호하는 포켓의 형태를 4개의 도식화로 제시하였는데, 입술포켓 > 사이드 포켓 > 아웃포켓 > 입체포켓 순으로 나타났다. 입술포켓은 저소득 층에서 입체 포켓은 고소득층에서 약간 높은 선호를 보였다.

선호하는 소매 끝의 형태를 도식화로 제시하여 조사하였는데, 커프스가 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절개선이 없는 것(35%) > 니트단(35%) > 고무줄(8%)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전업주부들은 절개선이 없는 형태를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선호하였으며 생활한복 구매의사가 낮은 층은 커프스를 상대적으로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티셔츠 네크라인 선호형태

티셔츠 네크라인형태에 대한 선호는 V네크가 48%로 가장 높았으며 라운드(27%) > 폴로네크(9%) > 셔츠네크(9%) > 후드(8%) 순으로 나타났다. 네크라인 형태에 대한 선호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월평균소득이 적은 집단에서 라운드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생활한복구매의사가 낮은 집단에서 후드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③ 여성 캐주얼 바지, 스커트 디자인

응답자들의 90% 정도는 6부 이상의 긴 바지를 선호하였으며 긴 바지보다는 6-9부를 약간 더 선호하였으나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집단이 6-9부의 길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생활한복구매의사가 궁정인 응답자들은 긴바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바지의 폭은 일자 바지(50%) > 나팔바지(22%) > 통바지(20%) > 몸에 붙는 스판바지(9%) 순으로 나타났다. 통바지는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생활한복 구매의사가 낮은 집단에서 일자바지 형태에 대한 선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스커트 디자인에서 A라인이 70%의 선호도가 나타났는데 특히 중 소득 계층에서 더 선호되었으며, 타이트 스커트는 고소득계층에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④ 캐주얼웨어에서 가장 선호하는 색채 계열

만 16-39세의 여성들은 밝고 강렬한 색 보다는

파스텔 색이나 검정, 회색 등 무채색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드러운 파스텔 색에 대한 선호는 60% 가까이 되었으며, 무채색(26%) > 밝고 강렬한 색(10%) > 유행 색(4%) > 기타 (1.5%)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색채계열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파스텔 색은 10대, 저소득층, 생활한복구매 긍정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무채색은 고소득자, 밝고 강렬한 색은 30대 층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 2. 생활한복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 (1) 한복의 착용 빈도와 생활한복의 구매의사

1년에 몇 번 정도 입는지 알아본 결과 63%가 한복을 입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나 주부들은 한복을 입는 빈도수가 높았으며, 1년에 한복을 3번 이상 착용하는 소비자는 주부, 생활한복 구매 긍정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행성을 고려한 생활한복의 착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있다'고 답한 사례는 15%였다. 그러나 전체의 45%는 '없지만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생활한복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생활한복을 착용한 경험이 높았으며, 중간 소득계층은 착용경험은 없지만 관심이 높았다. 거주 지역 별로 보면 서울, 특히 강북에서 착용 경험이 높았으며, 인천 / 경기의 경우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생활한복에 대한 구매의사는 평균 3.26점(5점 척도)으로 조사되었으며 중립 의향자가 51%를 보여 아직은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생활한복에 대한 신중한 또는 유보적인 입장은 보이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중, 상위 이상인 응답자일수록 생활한복에 대한 구매의사가 높았다.<표 8>

<표 9> 생활한복 선호 스타일

%	전체	연령		월평균 소득			거주지역					생활한복 구매의사				
		만18-19세	20-29세	30-39세	150만 미만	150-300만 미만	300만 이상	서울	강북	강남	인천/경기	부산	기타	긍정	중립	부정
사례수(명)	336	60	234	42	135	132	69	96	45	51	72	38	130	117	172	47
배래	27.4	30.0	26.1	31.0	29.5	27.3	23.2	31.3	40.0	23.5	27.8	23.7	25.4	23.9	30.2	25.5
고름	32.4	31.7	35.5	16.7	28.1	32.6	40.6	34.4	22.2	45.1	30.6	39.5	30.0	35.9	30.2	31.9
당의 라인	26.5	21.7	25.8	38.1	28.1	28.8	18.8	20.8	20.0	21.6	29.2	31.6	27.7	24.8	26.2	31.9
섶과 동정	13.7	16.7	12.8	14.3	14.1	11.4	17.4	13.5	17.8	9.8	12.5	5.3	16.9	15.4	13.4	10.6

<표 8> 갖고 있는 캐주얼웨어와 생활한복이 서로 어울릴 경우 생활한복 구매의사

(N=336명/%)

생활한복 구매의사	전체 응답자	연령			월평균소득		
		만18-19	만20-29	만30-39	150만 미만	150-300만 미만	300만 이상
긍정	34.8	31.7	34.6	40.5	28.9	40.2	36.2
중립	51.2	48.3	52.1	50.0	57.0	46.2	49.3
부정	14.0	20.0	13.2	9.5	14.1	13.6	14.5
5점척도 평균	3.26	3.15	3.26	3.40	3.16	3.33	3.29

### (2) 생활한복 디자인의 선호하는 스타일과 표현기법

생활한복디자인에 관한 4가지 도식화를 제시하고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고름을 응용한 디자인이 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저고리 소매 라인을 응용한 디자인(27.4%), 당의의 라인을 응용한 디자인(2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별로 살펴보면 저고리 소매라인을 응용한 디자인은 서울 강북지역에서 선호율이 높았으며, 고름을 응용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고소득층, 서울 강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당의의 라인을 응용한 디자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선호율도 높았다.<표 9>

또한 선호하는 문양은 조각보와 창살문양등의 기하학적 문양(49%)과 꽃문양(41%)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기하학적 문양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고소득층에서는 꽃문양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표 10>

선호하는 표현 기법에서 자수(58%)가 프린트(28%)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선호를 보였다. 자수는 모든 집단에서 골고루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프린트는 고소득층의 선호가 타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표 11>

〈표 10〉 생활한복 선호 문양

% 전체		연령			월평균 소득		
		만18-19	만20-29	만30-39	150만 미만	150-300만 미만	300만 이상
사례수 (명)	336	60	234	42	135	132	69
기하학적 문양	48.8	41.7	47.9	64.3	49.6	50.0	44.9
꽃 문양	40.8	31.7	44.4	33.3	36.3	42.4	46.4
수복문양	10.4	26.7	7.7	2.4	14.1	7.6	8.7

〈표 11〉 생활한복 선호 표현기법

% 전체		월평균 소득			생활한복 구매의사		
		150만 미만	150- 300만 미만	300만 이상	긍정	중립	부정
사례수 (명)	336	135	132	69	117	172	47
자수	57.7	60.7	57.6	52.2	59.0	55.2	63.8
프린트	27.7	24.4	27.3	34.8	27.4	29.7	21.3
누빔	14.6	14.8	15.2	13.0	13.7	15.1	14.9

## VI. 상품기획 및 제작

### 1. 브랜드 컨셉

생활한복의 이미지와 디자인, 시대별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생활한복 신규브랜드 개발을 위한 브랜드 컨셉 및 포지션 설정을 하고자 한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컨셉을 제시하고 차별화된 상품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하는 시장을 잘 수용하고 상품 경쟁력을 가진 신규브랜드의 감성 포지션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트래디셔널한 감각보다는 모던한 감각을 지향하며 포멀한 이미지보다 활동적이고 스포티한 감각을 표현하는 라인에 위치한다.

만22-29세를 메인타겟으로 하면서 만18-21, 30-39 세까지를 서브타겟으로 한다. 가격면에서는 시스템과 비슷한 중가 브랜드를 설정한다.〈표 12, 표 13, 표 14〉

### 2. 상품 기획

앞에서 분석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신규

브랜드 「Y.se」가 추구하는 상품컨셉에 대한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전반적인 상품전개 방향과 복종 구성을 설정해서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표 12〉 신규 브랜드 컨셉

메인타겟 : 만22-29세 타겟	서브타겟 : 만18-21, 30-39 까지의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생활 한복에 관심 있는 캐주얼 마인드 소비자
브랜드명	「Y.se」*
컨셉	모던한 감각의 생활한복을 지향하며 시티라이프 컨셉을 추구한다. · 캐주얼웨어의 편안함과 경쾌함을 바탕으로 기존의 획일화된 생활한복 디자인을 차별화 한다. · 실용적인 마인드와 독창적이고 전통적인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티캐주얼을 지향한다. · 매 시즌 트렌드를 적절히 반영하여 타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고감도 디자인을 제안한다.

· 박영선의 영문이름 약자

상품기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을 통한 생활한복 특징과 소비자 분석을 반영하여 실루엣, 소재, 색상, 디테일을 결정하고 디자인의 미적인 측면과 구조적 기능적인 측면을 상호결합하여 실용적인 의상을 제작한다.

둘째, 컨셉을 직선과 곡선의 미, 소재의 표면효과와 문양의 미, 소재와 장신구의 미 등 3가지 방향으로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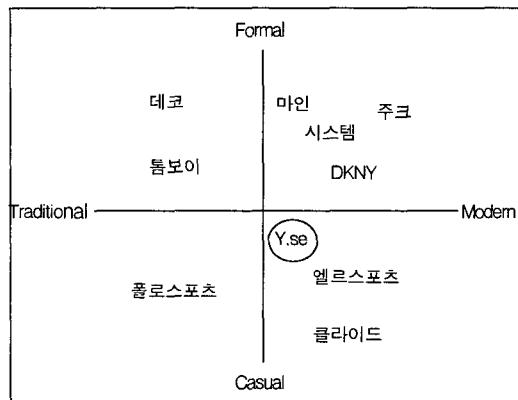
셋째, 생활한복의 이미지 중 원색의 색채는 트렌드와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캐주얼웨어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배제하였으며 소비자 선호도 분석에 따라 패스텔톤, 블랙톤을 사용한다. 또한 표현기법 중 깨끼는 수(手)작업을 필요로 하므로 종가의 캐주얼웨어에 부적합하여 배제시킨다. 또한 전통소재의 사용도 브랜드 캐릭터 포지션과 가격을 고려하여 디테일로 사용하거나 배색효과를 주어 제한한다.

넷째, 당의, 셜, 두루마기, 전복, 주머니 등 남성, 여성 복식, 장신구 등을 모티브로 하여 다양성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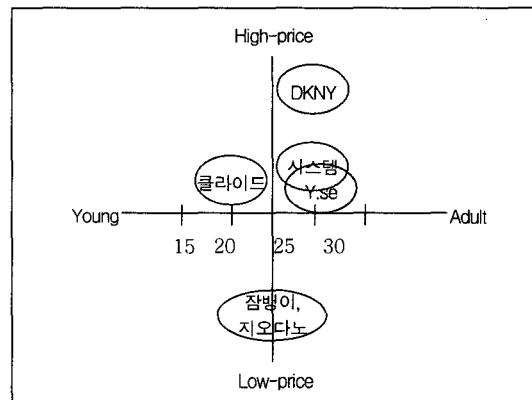
다섯째, 생활한복에 시도되지 않았던 하이테크한 소재로 독특한 이미지의 차별화된 고부가가치를 부여한다.

상품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13〉 브랜드 캐릭터 포지셔닝



〈표 14〉 브랜드 가격 & 연령 포지셔닝



자료: 안광호, 황선진 「패션마케팅」, p.28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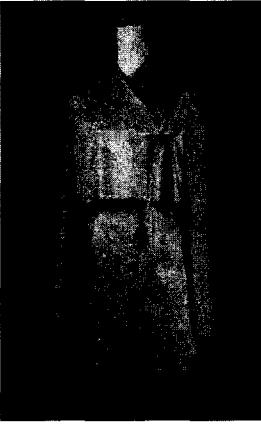
〈표 15〉 상품 계획표

주제 이미지	Fusion I				Fusion II			Fusion III		
	직선과 곡선의 미				소재의 표면효과와 문양의 미			소재와 장신구의 미		
특징	한복의 직선과 곡선의 미를 활용하여 실용성과 기능성을 표현				패치워크, 누빔, 문양의 미를 활용하여 모던함을 표현			한복의 소재와 장신구의 미를 활용하여 캐주얼 웨어의 디테일을 표현		
상품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구성	Blouse, Skirt, Vest	Blouse, Skirt	Jaket, Skirt	Blouse, Pants, Vest	Jaket, Pants	Top, Pants, Overskirt	Jaket, Pants	Coat	Jaket, Pants	Blouse, Skirt, Vest
색상	Beige	Beige	Black	Gray blue, Beige	Black	Beige, Black	Beige, Navy blue	Indigo pink	Beige, Indigo pink	Black
소재	Poly/ nylon, Silk	면	Poly/ nylon	Poly/ nylon, 인조가죽	Poly/ nylon	인조가죽, Acryl	Poly/ nylon, 면, Silk	Poly/ nylon, Silk	Poly/ nylon, Silk	Poly/ nylon
표현 기법	지퍼장식, 전통소재 배색	고분벽화 프린트 배색	당의 라인을 패치워크	액주름	패치워크, 지퍼장식	누빔효과 금사를 넣은 전통 문양 니트	전통소재 배색, 파이핑 스티치	전통소재 배색	전통소재 배색, 끈장식	지퍼장식, 전통소재 배색
스타일										

### 3. 상품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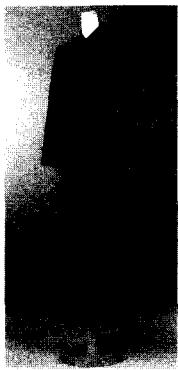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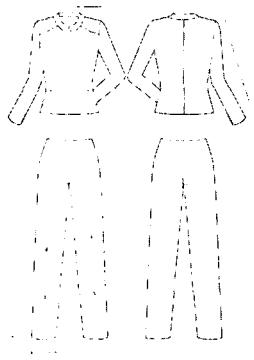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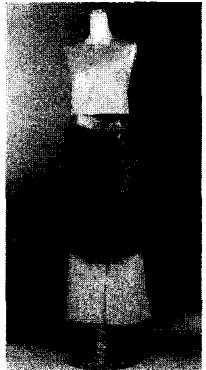
#### FUSION I.

한복의 직선과 곡선의 형태미를 활용하여 실용성, 기능성을 기본으로 하는 편안한 실루엣을 추구한다.

상품 I	<p>블라우스와 조끼, 스커트로 구성하였다. 조끼는 저고리의 동정과 셔선을 모티브로 하여 미니멀하게 표현하였으며, 끈으로 장식하여 전통미를 형상화하였다. 스커트는 A라인으로 지퍼를 열면 전통 소재가 보여 T.P.O에 따른 다양한 연출이 가능</p>	상품 II	<p>저고리의 동정 깃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였으며 치마에 주름을 주어 한복치마의 풍성함을 표현 고구려 고분벽화를 프린트하여 전통미를 반영</p>	
				
상품 III	<p>자켓과 스커트로 구성. 당의의 라인을 모티브로 디자인</p>	상품 IV	<p>블라우스와 팬츠, 조끼로 구성. 조끼는 액주름포의 주름을 표현. 바지는 전통바지의 직선의 미를 나타냄</p>	
				

FUSION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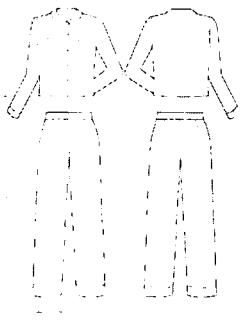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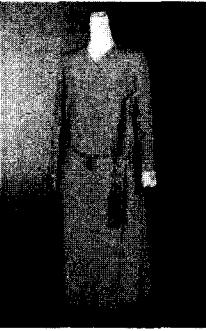
한복소재의 표면효과와 문양의 미를 활용하여 모던한 실루엣에 악센트 효과를 주었다.

상품 V	자켓과 팬츠로 구성되어 있다. Black 칼라로 모던한 감각의 생활한복을 표현. 전통소재와 Poly/nylon을 패치워크 지퍼장식을 하여 캐주얼한 모드를 추구	상품 VI	탑, 팬츠, 오버스커트로 구성. 탑의 누빔을 얇게 표현하였다. 문양은 금사를 넣어 직조
			

FUSION III.

한복에 사용된 소재와 장신구의 미를 활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한복소재는 브랜드의 가격 포지셔닝을 고려하여 디테일로 이용하였으며 지퍼장식, 끈장식과 함께 캐주얼웨어의 경쾌함을 표현하였다.

상품 VII	자켓과 팬츠로 구성. 소재의 전통미를 활용하여 디자인 하였으며 브랜드의 가격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이용하였다.	상품 VIII	두루마기를 모티브로 코트를 표현. 구슬과 곡옥을 엮어 술장식하여 장신구의 미를 표현하였다.
			

## V. 결론 및 제언

이론적 연구와 조사 분석을 토대로 상품 디자인 개발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은 미적인 측면과 구조적 기능적인 측면을 결합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 별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의상을 제시하였다.

둘째, 생활한복에 시도되지 않았던 하이테크한 소재로 독특한 이미지의 차별화된 생활한복을 제시하였다.

셋째, 체계화된 상품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시장을 예측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상품을 개발 제시하였다.

앞으로 시장변화와 소비자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디자인을 개발한다면 시장적중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한 기획과 다양한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구성해서 시장반응에 따른 새로운 보완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브랜드의 독자적인 컨셉을 유지, 발전시킨다.

앞으로 생활한복의 특징분석과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디자인 개발에 주력한다면 침체된 생활한복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며 캐주얼웨어 뿐만 아니라 아동복, 부인복, 실버층을 겨냥한 생활한복 등 다양한 디자인이 상품화되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김진아 (1994). 여자한복의 문양과 배색선호도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이선영 (1989). 한복의 현황 및 예술화의 전망.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조효순, 이상은 (1998). 생활한복 제작업체의 현황. 한복 입는날 학술 세미나.
- 4) 최은영 (1999). 생활한복의 구매동기에 관한 연구. 복식, 45.
- 5) 조효순, 이상은 (1998). 생활한복 제작업체의 현황. 한복 입는 날 학술 세미나, p. 44.
- 6) 이주원 (2002). 생활한복의 문화상품화를 위한 방안. 한복문화, 5(4), p. 88.
- 7) 금기숙 (1994).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p. 43.
- 8) 조규화 (1997). 한국패션에 나타난 미의식.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1(2), p. 11.
- 9) 조규화 (1996). 복식미학. 수학사, p. 330.

- 10) 금기숙 (1994).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p. 188.
- 11) 디자이너 토크 이신우. 월간 멋, 1986. 2, p. 216.
- 12) 디자이너 토크 진태옥. 월간 멋, 1987. 5, p. 102.
- 13) S. F. A Collection (1996). ism.